

# 조오현 선시조에 나타난 ‘공(空)’의 세계

배우식\*, 이승하\*\*

## || 차례 ||

1. 서론
2. 조오현 선시조의 형성 배경과 특징
3. 미시적 선시조 ‘문법’과 내면지향성
  - 3.1. 반야공(般若空)의 자유 세계
  - 3.2. 중도(中道)의 평화 세계
  - 3.3. 불이(不二)의 평등 세계
4.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오현 선시조의 사상적 바탕인 공사상(空思想)을 중심으로 상대적인 차별과 분별이 없는 ‘공(空)’의 세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아울러 조오현 선시조의 형성 배경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공사상의 ‘공(空)’이란 용어는 불교사상의 근본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말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조오현의 공사상은 반야공의 자유 세계와 중도(中道)의 평화 세계, 그리고 불이(不二)의 평등 세계로 나타난다.

‘반야공의 자유 세계’는 『반야경』에서 말하는 공사상을 바탕으로 펼쳐지는 세계다. 이 세계를 나타내는 「아지랑이」에서는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깨달음을 보여주고, 「허수아비」에서는 자유자재한 삶의 경지를 나타낸다. ‘중도의 평화 세계’가 잘 나타난 「숲」에서는 대립을 넘어서는 평화로운 세계, 즉 중도의 세계를 나타낸다. ‘불이의 평등 세계’는 둘이 아닌 ‘하나’인 세계, 즉 평등한 세계다. 「내가 죽어 보는 날」에서는 분별하고 대립하는 ‘내’가 죽고, 깨침의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깨침은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닌 하나인 세계를 나타낸다.

이런 ‘공(空)’의 세계를 나타내는 조오현의 선시조는 전통적인 한시 형식의 선시는 물론 한글 선시와도 변별성을 보이며 새로운 문학 양식으로 자리 잡는다. ‘공(空)’의 세계

\* 제1저자, 중앙대 대학원 박사수료, nicebird@naver.com

\*\* 교신저자,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shpoem418@hanmail.net

는 궁극적으로 자유·평화·평등의 세계를 나타낸다.

주제어 : 조오현, 선시조, 공, 공의 세계, 반야공, 중도, 불이

## 1. 서론

시승(詩僧) 조오현(曹五鉉)의 작품에 관한 연구는 학술논문으로는 조오현 시조의 총체적인 특징을 살핀 석성환의 논문<sup>1)</sup>과 시를 형성하는 불교적 사유를 통해 그의 문학적 세계관을 규명한 김민서의 논문<sup>2)</sup>이 있다. 형식 미학과 생명성, 유형과 범주에 대한 유순덕의 논문<sup>3)</sup>도 있다. 조오현의 작품에 관한 연구는 논문보다는 단편적인 평론이나 해설 등의 형식으로 연구<sup>4)</sup>되고 있지만 이 또한 조오현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오현의 선과 시조의 결합으로 형성된 선시조(禪時調)가 선시(禪詩)와 혼용되고 있으므로 우선 선시조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전통적 의미의 선시란 ‘한시’ 형식으로 쓰인 것을 말하는데, 이는 신수(神秀)와 혜능(慧能)에서 시작<sup>5)</sup>된 ‘한시’ 형식의 선시가 우리나라 최초로 “무의자 혜심(慧謙)이 본격적으로 선시를 지음으로써”<sup>6)</sup> 등장하였으며,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선과 한글 시가 만나 형성된 “‘한글 선시’란 문

- 
- 1) 석성환, 「무산 조오현 시조 연구」, 창원대 석사논문, 2006.
  - 2) 김민서, 「조오현 선시 연구」, 경기대 박사논문, 2014.
  - 3) 유순덕, 「현대시조에 나타난 형식미학과 생명성 연구」, 경기대 박사논문, 2015.
  - 4) 이승하, 「조오현 시에 나타난 불·법·승」, 『한국시조시학』 제2호, 2014.  
고봉준, 「동문서답으로서의 시 : 조오현」, 『아득한 성자』, 송준영 편, 『빈 거울』을 절간과 세간 사이에 놓기』, 시와세계, 2013, 9-12면.  
권영민, 「시조의 형식 혹은 운명의 형식을 넘어서기」, 송준영 편, 위의 책, 18-35면.  
유성호, 「타아(他我)가 발화하는 심연의 언어」, 송준영 편, 위의 책, 561-571면.  
이지엽, 「번뇌와 적멸의 아름다운 설법」, 송준영 편, 위의 책, 732-754면.  
이승원, 「시조미학의 불교적 회통」, 송준영 편, 위의 책, 660-682면.
  - 5) 박규리, 「경허선시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2012, 18면.
  - 6) 서덕주, 「현대 선시 텍스트의 생성과 해체성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2004, 30면.

학용어는 아직 정립되지 않았<sup>7)</sup>지만 이를 선시의 범주에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결국 선사란 한글 선시를 포함한 '한시' 형식의 전통적 선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선과 결합한 조오현의 '시'는 한글 선시의 범주에 포함시켜 '선시'라고 할 수 있으나, 형식과 의미 구조에서 시와는 변별성을 보이는 조오현의 선과 결합한 '시조'를 선시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본 연구는 선과 시조의 결합으로 형성된 선사조에 한정하므로 그 개념을 우선적으로 정립하고, 본 연구의 핵심인 공사상(空思想)이 조오현의 선사조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어떤 세계를 형성하여 나타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불교사상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 중 하나는 '공사상(空思想)'이다. 이 '공사상'의 “‘공(空)’이란 용어는 불교사상의 근본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말로, 특히 『반야경(般若經)』을 비롯한 대승경전에서 강조되고 있<sup>8)</sup>으며, 이 ‘공(空)’은 일반적으로 “자성(自性), 실체(實體), 본성(本性), 자아(自我) 등과 같이 인간이 궁극적으로 간주하는 본질적인 것들이 실제로는 없다고 하는 의미”<sup>9)</sup>를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이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공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조오현 선사조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지름길이다. 공사상에 대한 권성훈의 연구<sup>10)</sup>와 이상옥<sup>11)</sup>과 박찬일<sup>12)</sup> 등의 것이 있으나 공사상의 일부분만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조오현에게 공사상은 반야공의 자유 세계와 중도(中道)의 평화 세계, 그리고 불이(不二)의 평등 세계로 세분된다. 이렇듯 조오현의 선사조에는 편편마다 공사상을 바탕으로 세 개의 공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공사상이 '공의 세계'로 발현된 조오현의 선사조 세계는 궁극적으로 자유·평화·평등에로의 지향이다.

7) 김형중, 「한글 선시의 현대적 활용」, 송준영 편, 앞의 책, 109면.

8)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교재 편찬위원회, 『불교 사상의 이해』, 불교시대사, 2005, 152면.

9) 위의 책, 같은 면.

10) 권성훈, 「조오현 선시 「일색변」에 나타난 무아론」, 『한국문예창작』 제13호, 2008.

11) 이상옥, 「승속을 초탈한 불이의 세계」, 송준영 편, 앞의 책, 637-648면.

12) 박찬일, 「불이사상의 구체화·불이사상의 변주」, 위의 책, 167-183면.

『반야경(般若經)』 중 『반야심경』에는 ‘조건오온개공 도일체고액(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이라는 핵심적 구절이 있다. 이는 ‘오온(五蘊)이 공하다는 것을 깨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말이다.

조오현 선사조에서는 공의 또 다른 의미인 중도사상이 곳곳에서 나타난다. ‘중도(中道)’란 대립하는 두 극단[二邊]을 버리고 기울어짐이 없는 바른 도(道)라는 의미이다.

대승의 “기본은 ‘하나’인 진리에 있다. 이 절대한 ‘하나’인 진리를 불이법(不二法)이라고 한다.”<sup>13)</sup> 세속과 열반, 부처와 중생 등 대립되는 것은 모두 ‘하나’인 바탕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하나’인 바탕은 다름 아닌 ‘깨침’에 있다. 깨침의 안목으로 모든 것이 둘이 아닌 평등한 세계이다.”<sup>14)</sup> 깨친 자의 눈에는 언제나 둘이 아니다.

본고는 조오현 선사조의 사상적 바탕인 공사상(空思想)을 중심으로 선사조 작품의 개별적인 분석을 통해 그의 선사조 전반에 흐르고 있는 상대적인 차별과 분별이 없는 자유·평화·평등의 세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에 이 논문의 의의를 둔다.

## 2. 조오현 선사조의 형성 배경과 특징

선과 시의 첫 만남은 먼저 선가에서 시의 형식을 빌어 ‘선(禪)’을 나타내면서 이루어진데서 시작되었다. 이른바 신수와 혜능이 시적 형식으로 선의 묘의(妙意)를 밝힌 사례가 그것이다.<sup>15)</sup> 이런 선시의 탄생은 오조 홍인이 대중에게 깨달음의 노래인 계송(偈頌)을 지어 제출하라는 요청에서 출발한다. 오조 홍인의 이런 요청에 신수(神秀)와 혜능(慧能)이 각각 계송을 지었으며, 이 계송이 중국 선종사상 최초의 선시가 된다.<sup>16)</sup> 이때 지은 계송으로 혜능은 깊은

13) 강건기, 『깨침을 향하여(하권)』, 불일출판사, 2008, 68면.

14) 위의 책, 68-69면.

15) 박규리, 앞의 논문, 18면.

16) 오조 홍인이 계송을 지으라는 요청에 신수는 “몸은 다름 아닌 깨달음의 나무요,/

밤 오조 홍인의 법을 받는다. “박학다문한 대선배인 신수를 물리치고 일자무식인 초동목수(樵童牧豎: 혜능)에게 법을 전하였으니, 불법은 문자에 있지 않고 견성에 있는 것임을 알”<sup>17)</sup> 수 있게 한다. 후에 혜능이 4구계(불립문자·직지인심·교외별전·견성성불)에 심혈을 기울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신수와 혜능의 계송은 “선과 시를 하나로 융합하여 중국의 시학(詩學)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sup>18)</sup> 이처럼 시와 선의 융합으로 “시를 알지 못하면 선을 알 수 없고, 선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선인의 깊은 경지가 담긴 시를 이해할 수 없으며, 또 선으로써 시를 논한 심오한 뜻을 알 수 없게 되었다.”<sup>19)</sup> 이런 영향으로 시선일치(詩禪一致), 시선일여(詩禪一如) 등의 언어가 출현한다.

상(常)과 무상(無常), 낙(樂)과 무락(無樂), 아(我)와 무아(無我), 정(淨)과 부정(不淨)의 양극단을 모두 부정하며 더 나아가 이 부정하는 생각까지도 부정”<sup>20)</sup>하는 선은 그 종지(宗旨)가 불립문자(不立文字)·교외별전(教外別傳)·직지인심(直指人心)·견성성불(見性成佛)이다. 이 말은 달마대사가 그의 오성론(悟性論)으로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서 “교외별전·불립문자는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이치를 별도의 방법을 통해 전한다는 말”<sup>21)</sup>이며, 직지인심·견성성불은 “사람마다 지닌 마음이 본래 청정하여 부처와 다름이 없으

---

마음은 명경의 받침과 같네./ 때로는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가 묻지 않도록 할지니.(身是菩提樹, 心如明鏡臺. 時時勤拂拭, 莫使有塵埃.)”라고 하였다. 이에 혜능은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는 것./ 명경 역시 받침이 없다./ 불성은 항상 청정한 것인데./ 어느 곳에 티끌이 있다고 하는가?(菩提本無樹, 明鏡亦無臺. 佛性常清淨, 何處有塵埃.)”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한 수의 계송을 지었는데 “마음은 바로 보리의 나무요./ 몸은 명경의 받침대로다./ 명경은 바로 청정한 것./ 어느 곳에 티끌이 더럽힐 수 있으랴?(心是菩提樹, 身爲明鏡臺. 明鏡本清淨, 何處染塵埃.)”이다. 혜능은 깊은 밤 오조 홍인의 법을 전해받았다. 이 부분은 『육조단경(六祖壇經)』 등에 수록되어 있다.

17) 퇴옹 성철, 『성철스님의 돈황본 육조단경』, 장경각, 2015, 83면.

18) 두송백(杜松柏), 박완식·손대각 옮김, 『선(禪)과 시(詩)』, 민족사, 2000, 28면.

19) 위의 책, 같은 면.

20) 임종욱, 『우리 고승들의 선사세계』, 보고사, 2006, 16면.

21) 권기호, 『선시의 세계』, 경북대학교출판부, 1991, 13면.

므로, 그 마음을 곧바로 가르침으로써 부처와 동일한 성품임을 깨닫고 해탈, 곧 성불(成佛)한다는 것이다.”<sup>22)</sup> 교외별전에서 ‘별(別)’은 “교(敎)가 아닌 심(心)으로써 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외별전·불립문자 대신에 이심전심(以心傳心)·불립문자(不立文字)로 설명하기도 한다.”<sup>23)</sup> 이와 같이 별전(別傳)의 선은 “언어 표현으로 전하지 않을 수 없을 때, 그 언어 표현은 되도록 압축 내지는 함축성을 띠어, 극도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다.”<sup>24)</sup> “그러므로 언어로 표현되는 시와 별전의 선은 한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선은 언어도단(言語道斷), 심행처멸(心行處滅)<sup>25)</sup>의 언어부정 정신의 자리에서 실현되며, 이와 반대로 시는 언어에 의해서 성립되므로 이 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선시조는 어쩔 수 없이 어떤 한계성을 갖고 있지만, “선도(禪道)는 오직 묘오(妙悟)에 있고, 시도(詩道) 역시 묘오에 있다.”<sup>26)</sup> 라고 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것에서는 동일성을 나타낸다. “선가문학은 말에 대한 불신에 근거하고 있지만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선의 뜻을 말로 나타내 보이는 역설적 논법에 입각해 있다.”<sup>27)</sup> 따라서 선시조의 이해에는 깊은 선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선의 세계를 노래한 선시는 ‘무형식의 형식’이란 파격적인 특성을 갖는다.”<sup>28)</sup> 선시조에서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격외적(格外的)인 형식과 표현이 나타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그동안 “선의 불립문자와 시의 언외취의(言外取義), 그리고 작시(作詩)와 참선(參禪)의 방법론의 일치점, 또는 추구의 동일성으로써 시와 선의 융합은 꼭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왔다.”<sup>29)</sup> 이렇듯 선과 시는 동일성도 존재하므로 오랫동안 선시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시는 “무의자 혜심(慧謙)이 본격적으로 선시를 처음으로 지

22) 위의 책, 같은 면.

23) 위의 책, 14면.

24) 이종찬, 『한국선시의 이론과 실제』, 이화문화출판사, 2001, 15면.

25) 마음 작용이 소멸한 상태. 분별이나 망상이 끊어진 상태.

26) 엄우(嚴羽), 배규범 역주, 『창랑시화(滄浪詩話)』, 다운샘, 1998, 61면.

27) 권기호, 앞의 책, 25면.

28) 송준영, 『선, 언어로 읽다』, 소명출판, 2010, 19면.

29) 杜松柏, 앞의 책, 434면.

음으로써 선시가 등장하게 되었다.”<sup>30)</sup>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초의 선시는 신수와 혜능의 계승으로서 자신들의 언어로 쓴 ‘한시(漢詩)’였으며, 혜심 역시 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당시에는 우리의 한글이 없었으므로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는 한글로 선시를 쓰는 것이 당연함에도 “아직도 우리 교단의 형식은 5언 4구의 한시 형식을 불문율처럼 지켜오”<sup>31)</sup>며 그대로 쓰고 있다. 이처럼 선가(禪家)에서는 지금도 관행처럼 ‘한시’ 형식을 빌려 쓰고 있다. 이를 전통적 선시라고 말 할 수 있다.

만해 한용운이 처음으로 한글로 된 시조를 썼으나 “문학적 형상성이나 투철한 선리(禪理), 이 양자를 성공적으로 조화시킨 시조로서의 선시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던 것은 유감이다.”<sup>32)</sup> 이렇듯 만해의 시조는 선시조로서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한시 형식의 선시를 새로운 형식인 한글 ‘선시조’로 창작한 조오현은 첫 선시조집인 『심우도』<sup>33)</sup>를 통해서 최초로 선시조를 선보인다. 새로운 형태의 조오현 ‘선시조’는 선과 시조의 결합으로 형성되었다. 우선 ‘선시조’는 ‘신수와 혜능의 계승’으로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한시’ 형식의 선시와는 확연히 그 변별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아직은 정립되지 않은 ‘한글 선시’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오현 선시조는 정형의 형식과 의미구조면에서 한글 선시와 다른 면을 보이고 있다. 선시조는 시조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시조의 형식과 의미구조를 파악함으로써 그 변별성을 나타낼 수 있다. 시조의 “보편적 형식장치는 ①초·중·종장의 삼장 ②각장의 사음보 ③종장의 첫 음보와 둘째 음보가 각각 3자와 5자 이상으로 될 것 등의 세 가지 조건으로 통용되고 있다.”<sup>34)</sup> 이처럼 선시조는 ‘한글 선시’와는 분명하게 다른 선시조만의 정형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선시조가 가지고 있는 내적 의미구조에서도 ‘한글 선시’와는 변별성을 보인

30) 서덕주, 앞의 논문, 30면.

31) 김형중, 「아득한 성자」, 권성훈 편, 『이렇게 읽었다』, 반디, 2015, 44면.

32) 오세영, 『현대시와 불교』, 살림출판사, 2006, 91면.

33) 조오현, 『심우도』, 한국문학사, 1978.

34) 이지엽, 「21세기 시조 창작의 일 방향 고찰」, 송준영 편, 『빈 거울’을 절간과 세간 사이에 놓기』, 시와세계, 2013, 757면.

다. “3장의 짧은 내용 속에 현대시 1편의 의미구조를 담아낼 수 있는 내적 틀을 갖추고 있는 것”<sup>35)</sup>이 선시조이기 때문이다. 선시조의 “3장은 현대시의 3행과는 판이하게 다른 성격의 것이며, 한 행을 이루는 2구의 성격도 현대시에서의 한 행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sup>36)</sup> 또한 “각 수마다 개별 작품의 의미구조를 수렴하면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이루어지는”<sup>37)</sup> 연시조로서의 선시조 역시 ‘한글 선시’와는 변별성을 나타낸다. 조오현 선시조는 이처럼 형식과 의미구조면에서 ‘한글 선시’와는 변별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조오현 선시조는 독립적인 문학 양식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오현 선시조는 위에서 고찰한 선지(禪旨)가 뜻하는 의미와 선(禪)의 정신을 모두 담아 시적으로 표현한다. 다만 한시 형식의 시가 아닌 시조에 그 선(禪)을 결합하여 선시조화 한다. 작품의 형식적 특성은 시조의 형식을 지키면서도 그 안에서 최대한 형식적 자유로움을 갖는다.

조오현 선시조는 외적인 표현보다는 내적인 의미에 집중한다. 그의 선사상 혹은 불교사상 등은 함축된 언어를 통하여 새로운 선의 세계로 나타난다. 그의 선시조는 평생을 선수행하며 닦고 또 닦아온 마음 혹은 영혼의 울림이며 표현이어서 쉽게 그 속뜻이 보이지 않는다. 조오현의 선시조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이다.

### 3. 미시적 선시조 ‘문법’과 내면지향성

공사상의 대표적인 경전은 『반야경(般若經)』<sup>38)</sup>이며, 『반야경』의 공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여 중도(中道)사상을 나타낸 것이 용수(龍樹)의 『중론(中論)』<sup>39)</sup>이다. 또한 『유마경(維摩經)』<sup>40)</sup>의 불이(不二)사상은 ‘하나’인 세계를

35) 박제천, 「현대시와 현대시조의 의미구조 탐색」, 『문학과창작』, 2002.6, 167면.

36) 위의 글, 같은 면.

37) 위의 글, 같은 면.

38) 많은 대승경전 가운데 가장 일찍이 성립된 것이 『반야경(般若經)』으로 이 『반야경』은 『대반야바라밀다경(大般若波羅蜜多經)』 600권으로 후에 집대성된다.

나타낸다. “이런 ‘하나’인 세계를 공(空)이라고 표현”<sup>41)</sup>하여 불이(不二)사상 또한 공사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사상이 조오현 선사조의 시적 세계관을 어떻게 형성하여 어떤 ‘공(空)’의 세계를 나타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 3.1. 반야공(般若空)의 자유 세계

반야공<sup>42)</sup>의 자유 세계는 『반야경』에서 말하는 공사상을 바탕으로 펼쳐지는 세계이다. 『반야경』의 핵심사상을 담고 있는 『반야심경(般若心經)』<sup>43)</sup>은 260자의 가장 짧은 경전이면서도 공사상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경전이다. ‘색불이공 공불이색(色不異空 空不異色)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空卽是色)’<sup>44)</sup>은 ‘공’의 원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구절로서 대자유의 자리임을 보여주고 있다.

놈이라고 다 중놈이나

39) 용수(龍樹: Nāgārjuna)가 지은 책으로 범어의 원명은 『중송』, 흔히 『근본중송』이라고 불린다. 27품 446계송으로 이루어졌다. 이 책에서 용수는 공(空)을 ‘인연생(因緣生)’이라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공(空)을 때로는 ‘가명(假名)’이라 하고 때로는 ‘중도(中道)’라 말하고 있다.

40) 『유마경(維摩經)』은 『반야경』 뒤에 나타난 1세기경의 초기 대승불교 경전이다. 이 경(經)은 반야경의 공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대승보살의 시천 수행을 선양하고, 재가 신도가 수행해야 할 종교적 덕목을 설명하며, 궁극적 깨달음의 경지인 불이법문(不二法門)을 보여주고 있다.

41) 강건기, 앞의 책, 70면.

42) 대승불교의 대표적 사상인 반야와 공(空)을 합친 말. 반야란 지혜를 뜻하는데, 그 지혜는 일체를 공으로 보는 지혜이다. 일체를 공으로 보는 지혜라는 뜻에서 붙여서 반야공이라고 부른다.

43) 『반야심경』은 『금강경』과 함께 불교계에 가장 널리 퍼진 경전의 하나로서 『대반야경』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600권에 달하는 『대반야경』의 미묘한 이치를 모두 함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 핵심 개념이 모두 나타나 있다.

44) 색과 공이 다를 바 없고 공이 색과 다를 바 없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깨달으면, 중생도 부처와 다르지 않고 또한 중생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중생이라는 의미이다.

중놈 소리 들을라면

취모검 날 끝에서  
그 몇 번은 죽어야

그 물론 손발톱 눈썹도  
짓물러 다 빠져야

—「취모검<sup>45)</sup> 날 끝에서—일색변 6」 전문

색은 인연에 의해 잠시 나타난 물질 혹은 육체이며, 공은 인연으로부터 나타나기 전부터 있었던 본체이다. 색은 차별이고 공은 평등을 의미한다. 초장의 “놈이라고 다 중놈이나”에서 “중놈”은 색으로서의 존재이며, “중놈 소리 들을라면”에서의 “중놈”은 중장의 “취모검 날 끝에서/ 그 몇 번은 죽”은 무분별의 ‘공’의 세계이며, 분별이 끊어진 상태다. 중장에서 공의 세계를 한 번 더 보여주기 위해 “그 물론 손발톱 눈썹도/ 짓물러 다 빠져야”라고 불변하는 실체가 없음을 나타낸다. “이분법의 분별이 끊어진 무분별의 상태에서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게 된다. 이런 상태를 열반(涅槃)·무위(無爲)라고도 한다.”<sup>46)</sup> 열반의 경지에서 보면 색은 공이고, 공이 색인 것이다. 중생이 곧 부처인 것이다. ‘일색변(一色邊)’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인 경계, 즉 중생과 부처가 일체인 곳을 의미한다. 「취모검 날 끝에서—일색변 6」은 “놈이라고 다 중놈이나”에서 “중놈”이 곧 “중놈 소리 들을라면”에서의 “중놈”인 것이다. 일체 분별이 끊어진 ‘공(空)’의 세계, 즉 무위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 옛날 천하장수가  
천하를 다 들었다 놓아도

한 티끌 겨자씨보다

45) 칼날 위로 터럭을 붙면 그 털이 잘라질 정도로 예리한 명검이다. 여기서 취모검은 사람이 본래 갖추고 있는 심성, 부처님의 지혜를 비유한다.

46) 박철환,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불광출판, 2014, 88면.

어쩌면 더 작은

그 마음 하나는 끝내  
들지도 놓지도 못했다더라.

—「마음 하나」 전문

이 선사조의 핵심어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가운데도 가장자리도 없다. 실체가 없어서 모양도 색깔도 없다. 크기도 없고 무게도 없다. 비유비무(非有非無)인 ‘공(空)’의 세계다. 선가에서 깨달음이란 참선 수행을 통하여 만물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마음의 정체를 깨닫는 것이다. 그것이 자성 불성이다. 중장의 “한 티끌 겨자씨보다/ 어쩌면 더 작은”은 역설적으로 본래면목인 마음이 우주와 같이 실체 없이 무한함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제아무리 힘센 “그 옛날 천하장수”라도 “들지도 놓지도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나아갈 길이 없다 물러설 길도 없다  
돌러봐야 사방은 허공 끝없는 낭떠러지  
우습다  
내 평생 찾아온 것이 절벽이라니

끝내 삶도 죽음도 내던져야 할 이 절벽에  
마냥 어지러이 떠다니는 아지랑이들  
우습다  
내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이 아지랑이더라니

—「아지랑이」 전문

‘아지랑이’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것은 공을 의미한다. 둘째 수 종장의 “내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은 “아지랑이”라고 한 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공’함을 알고 평생 선수행(禪修行)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자의 겸손한 고백이다. 둘째 수 초장의 “끝내 삶도 죽음도 내던져야 할” “절벽”, 그 “절벽”은 첫째 수 종장에서 “평생 찾아온” 도착점이다. 첫째 수 초장의 “나아

갈 길이 없다 물러설 길도 없”는 그곳은 또한 중장의 “끝없는 낭떠러지”인 것이다. “사방”이 “허공”인 낭떠러지인 것이다. ‘절벽’과 ‘낭떠러지’는 깨달음을 위한 길의 상징이다.

『무문관』 제46칙 「간두진보(竿頭進步)」에서 석상초원(986~1039)이 ‘백척의 장대 끝에서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의 스승 고덕(古德)은 “백척간두에서 모름지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시방세계에 온몸을 나탈<sup>47)</sup> 것이다”라고 답한다. 조오현은 자신이 역해한 이 『무문관』의 ‘사족’에서 “수행이란 완성됐다고 안주하는 그 순간부터 타락이 시작된다. 늘 모자란다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아야 허방에 떨어지지 않는다.”<sup>48)</sup>라고 말하고 있다. 깨달음의 세계는 잠시라도 안주해서는 안 된다. ‘아지랑이’를 통해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깨달음은 지극한 도(道)의 경계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서울 인사동 사거리  
한 그루 키 큰 무영수(無影樹)

뿌리는 밤하늘로  
가지들은 땅으로 뻗었다

오로지 떡잎 하나로  
우주를 다 덮고 있다.

—「된바람의 말—무자화 5」 전문

이 선시조의 초장의 ‘무영수(無影樹)’는 『벽암록』 제18칙 「중국무봉」, 혜충 국사가가 대종(代宗)(재위 762~779)에게 던진 선문답에 나오는 나무다. 이 ‘무영수’는 말 그대로 ‘그림자 없는 나무’이다. 황제는 국사의 무봉답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림자 없는 나무’는 무봉답을 말한다. 현상계에서 그림자 없이 존재하는 것이 있을까. 그렇다면 이 ‘무영수’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그

47) ‘나투다’는 ‘나타나다 · 현현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부처님께서 정신적인 모습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48) 무문혜개(無門蕙開), 오현 역, 『무문관』, 불교시대사, 2007, 282면.

림자'가 없으면 실제로 존재하는 나무가 없다는 의미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림자가 없겠는가. “그림자가 없는 것은 상대적인 차별과 분별이 없는 절대의 경지다. 즉, 선악과 미오(迷悟), 시비(是非)는 모두 중생심의 차별로 나타난 망념의 그림자인 것이다.”<sup>49)</sup> 또한 ‘무영수’는 ‘실체가 없는 나무’의 상징이다. 이는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 즉 ‘공(空)’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절대의 경지’에서는 시·공간이 없는 경지다. 따라서 종장의 “뿌리는 밤하늘로/ 가지들은 땅으로 뻗”을 수 있으며, 종장의 “오로지 떡잎 하나로/ 우주를 다 덮고 있다.”라고 진술한 것은 것은 ‘생명’이란 그것이 비록 하나의 떡잎일지라도 우주의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새떼가 날아가도 손 흔들어주고  
 사람이 지나가도 손 흔들어주고  
 남의 논일을 하면서 웃고 있는 허수아비

풍년이 드는 해나 흉년이 드는 해나  
 - 논두렁 밟고 서면 -  
 내 것이거나 남의 것이거나  
 - 가을 들 바라보면 -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나도 웃는 허수아비

사람들은 날더러 허수아비라 말하지만  
 똑바로 서서 두 팔 짝 벌리면  
 모든 것 하늘까지도 한 발 안에 다 들어오는 것을  
 -「허수아비」 전문

이 선시조는 자유자재한 삶의 경지를 보여준다. ‘나’라는 집착을 버린 경지에서는 “새떼가 날아가도”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도” 웃으면서 “손 흔들어” 줄 수 있다. 『반야심경』에는 ‘조건오온개공(照見五蘊皆空)’<sup>50)</sup>이라는 중요한

49) 원오 극근(園悟 克勤), 정성본 역해, 『벽암록』, 한국선문화연구원, 2010, 121면.

50) 존재의 실상인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다(밝게 깨치다)’라는 뜻임.

구절이 있다. 이것은 도일체고액(度一切苦厄)<sup>51)</sup>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고(苦)와 집착을 일으키는 오온(五蘊)<sup>52)</sup>은 분별을 일으키는 근원이 다. ‘조건오온개공 도일체고액’은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깨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말이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깨친다는 것은 ‘나’의 공함을 깨친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둘째 수 종장의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나도 웃는 허수아비”는 오온을 공으로 보고 살아가는 대자유인이다.

셋째 수 초장의 “사람들”은 오온이 공함을 깨치지 못하여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중생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날더러 허수아비라 말하”지만 그런 말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뚝바로 서서 두 팔 짝 벌”리는 “허수아비”의 모습에서 그물을 막힘없이 지나가는 바람 같은 자유로움을 본다. “모든 것 하늘까지도 한 발 안에 다 들어오는” 자유자재한 삶을 살아가는 ‘허수아비’는 바로 부처다.

간혹 대낮에 몸이 흔들릴 때가 있다.  
땅을 짚어봐도 그 진도는 알 수 없고  
그럴 땐 눈앞의 돌도 그냥 헛보인다.

언젠가 무슨 일로 흥릉 가던 길목이었다.  
산 사람 큰 비석을 푸석돌로 잘못 보고  
밭길로 걸어차다가 다칠 뻔한 일도 있었다.

또 한 번은 종로 종각 그 밑바닥에서였다  
누군가 내버린 품치 없는 한 장 통문  
그 막상 다 읽고 나니 내가 대역죄인 같았다.

그 후론 정말이지 몸조심한다마는

51) ‘일체의 괴로움(고액)에서 벗어난다’는 뜻임.

52) 좁게는 사람, 넓게는 모든 존재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구성 요소이다. 형상을 지닌 물질적인 것[色]과 정신적인 것[受·想·行·識]을 말한다. 수(受)는 분별이다. 대상을 보고 ‘좋다, 나쁘다’고 느끼는 작용이고, 상(想)은 표상작용으로써 생각을 개념화 시키는 것이다. 행(行)은 의지작용이고, 식(識)은 인식작용이다.

진도가 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흔들리고  
따라서 내 삶도 헛걸음 헛보고 헛딛는다.

-「내 삶은 헛걸음-1980년 방문 1」 전문

‘몸’은 형상을 지닌 ‘색’이다. 그 몸이 “흔들릴 때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오온 중 하나인 수온(受蘊)에 해당된다. 첫째 수 중장의 “진도”는 분별력을 의미한다. 그 분별력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수온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공의 세계에서는 분별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종장의 “그럴 땐”은 이런 깨달음의 순간을 나타낸다. 그런 순간에는 “눈앞의 돌도 그냥 헛보인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헛보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잘못 보인다’가 아니다. ‘헛’은 그 어원이 ‘허(虛)’이다. ‘허’는 비어 있음, 즉 ‘공’의 세계를 말한다. ‘수온(受蘊)’이 공함을 깨닫는 세계다.

둘째 수 역시 “잘못 보는” 분별을 통해 색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분별은 셋째 수 종장으로 이어져 “대역죄인 같았다.”라고 느끼며 판단한다. 이 연시조의 마지막 수인 넷째 수 중장에서 또 “흔들리”는 분별심을 보인다. 종장의 “따라서”는 오온이 공하다는 깨달음을 강조하기 위한 역설적 표현이다. 선시조는 비논리적인 수사기 많다. “내 삶도 헛걸음 헛보고 헛딛는다.”에서의 “내”는 스스로를 영원한 실체가 없는 ‘공’으로 보는 사람이며, 오온을 ‘공’으로 보는 사람이다. 단순한 이론을 넘어 대자유의 삶을 살기 위한 ‘공’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루라는 오늘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뜨는 해도 다 보고  
지는 해도 다 보았다고

더 이상 더 볼 것 없다고  
알 까고 죽는 하루살이 때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나는 살아 있지만  
그 어느 날 그 하루도 산 것 같지 않고 보면

천년을 산다고 해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때

—「아득한 성자」 전문

“하루라는 오늘/ 오늘이라는 이 하루”라는 이 첫 구는 신비롭기까지 한 표현이며 발상이다. “과거의 일을 근심하지 않고/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현재의 일에 따라/ 바른 지혜로 알아차리기를 확립하”<sup>53)</sup>라는 붓다의 계송과 비견될 만큼 함축된 깨달음의 수사적 표현 때문이다.

이 “하루”라는 ‘시간’의 의미는 “뜨는 해도 다 보고/ 지는 해도 다보”보고 “더 이상 더 볼 것 없다고 알 까고 죽는 하루살이 때”의 ‘삶의 시간’으로 치환된다. “어제와 내일은 허상이고 망상이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실제이고 현실이고 현존(現存)이다.”<sup>54)</sup> 선에서 시간이란 실재하지 않는다. 시간은 고정적이지 않고 변화해가는 무상(無常)의 삶 속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관념일 뿐이다.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는 삶은 허상의 삶이다. 이 순간을 사는 것이 삶이다. 그래서 “죽을 때가” “지났”을 만큼 오래 살았는데도 “하루도 산 것 같지 않”은 나는 “천년을 산다고 해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때”임을 깨닫는다. 조건오온개공, 즉 오온이 모두 공이라는 의미이다. 무상한 삶 속에서 무엇이라고 규정할 만한 것이 없다. 텅 비어 있는 삶 속에서 “오늘” 이 순간만을 사는 “하루살이 때”를 통해서 “성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

나이는 늙었늙었던 해가 되었고  
생각도 구부러진 등골뼈로 다 들어났으니

53) 『잡아함경』 제36권 제3경의 계송 중 일부.

54) 광철환, 앞의 책, 155면.

오늘도 젓비듬히 선 등걸을 짚어본다.

그제는 한천사 한천스님을 찾아가서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물어보았다  
말로는 말 다할 수 없으니 운판 한 번 쳐보라, 했다.

이제는 정말이지 산에 사는 날에  
하루는 풀벌레로 울고 하루는 풀꽃으로 웃고  
그리고 흐름을 다한 흐름이나 불 일이다.

— 「산에 사는 날에」 전문

이 선시조의 핵심 구절은 셋째 수 중장의 “하루는 풀벌레로 울고 하루는 풀꽃으로 웃고”이다. 이는 『금강경(金剛經)』의 네 가지 상(相), 즉 사상(四相)<sup>55)</sup> 중에서 중생상(衆生相)을 버린 경지를 나타낸다. “나”와 “풀벌레”와 “꽃”이 나와 다른 생명이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무상(無相), 즉 ‘하나’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무상은 『금강경(金剛經)』의 선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상이다. 대표적 4구체인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則見如來)’는 무상의 의미를 나타낸다. 바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만약 모든 상을 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면 여래를 본다.”는 것이다. 여래는 진리의 범신을 의미한다.

첫째 수 초장과 중장은 오랫동안 수행 정진한 수행자의 모습을 나타낸다. 뒤로 자빠질듯이 비스듬하게 선 “등걸”을 바라보는 시인의 모습이 선연하다. “등걸”은 아상(我相), 즉 ‘나다’하는 착각에서 벗어난 시인 자신의 ‘여래’ 같은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둘째 수에서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묻”는 시인에게 “한천 스님”은 “말로는 말 다할 수 없으니 운판 한 번 쳐보라”고 한다. 수행자로서의 예불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셋째 수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중장에서 무상(無相)을 나타낸다. 중장의 “흐름을 다”함은 “흐르지 않음”과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이른바 안식과 안식에 의해 인식되는 빛깔에 의지해 사랑과 기쁨이 생긴다. 귀 · 코 · 혀 · 몸도 마찬가지로”<sup>56)</sup>다. 그러므

55) 사상(四相)은 아상(我相),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者相)을 말한다.

로 “흐름을 다한 흐름”을 보는 것은 일체의 ‘탐욕이 없으며 멀하고 쉬고 사라진’ 상태를 말한다.

조오현의 선시조 「산에 사는 날에」는 모든 생명과 인간, 더 나아가서는 자연의 ‘꽃’까지도 구별하지 않는 ‘하나’라는 ‘생명주의’를 보여주고 있으며, 무상의 공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 3.2. 중도(中道)의 평화 세계

용수(龍樹: Nāgārjuna)의 대표적 저술은 『중론』이며, 중도(中道)<sup>57)</sup>에 입각한 사상을 담고 있다. “선종의 근본원리가 중도이다.”<sup>58)</sup> 중도란 대립하는 두 극단[二邊]을 버리고 기울어짐이 없는 바른 도(道)라는 의미이다. 비유비무(非有非無)인 공은 중도라 부르며, 공(空)·가명(假名)·중도(中道)는 모두 연기(緣起)와 동의어다.<sup>59)</sup> 공은 중도와 동일한 의미이고 유와 무의 대립을 떠난 것이다.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다  
산은 골을 만들어 흐르게 하고  
나무는 걸썩길 속에 벌레들을 기르며  
—「숲」 전문

용수는 『중론』에서 『반야경』의 ‘공’은 연기(緣起)를 전제로 함을 밝히고 있다. 『중아함경』<sup>60)</sup>에서 “연기<sup>61)</sup>를 보는 자는 법(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56) 김월운, 『잡아함경 2』, 동국역경원, 2006, 48면.

57) 『중론』 제24장 제18장에서 ‘중도’라는 용어가 나온다. 유(有)·무(無)·선(善)·악(惡)·고(苦)·낙(樂)의 양면을 완전히 떠난 것이 중도(中道)다. 한쪽에 집착하면 변견(邊見)이라고 한다. 변견은 세간의 생멸법이지 불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양면을 떠나서 중도의 정견을 얻어야 한다.

58) 퇴옹 성철, 『백일법문(하)』, 장경각, 2014, 32면.

59) 나카무라 하지메, 남수영 역, 『용수의 중관사상』, 여래, 2010, 231면.

60) 중국 동진의 구담승가제바가 번역하였으며 4아함의 하나다. 부처와 제자들의 언행을 기록하였다.

연기를 본다”고 하였다. 이 말은 ‘연기를 본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과 동일하다. 중장의 “산”과 “골” 그리고 “흐르는” 물 그리고 중장의 “나무”와 “겉껍질” 그리고 “벌레들”의 연기를 보며 시인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들 살고 있다”라고 깨달음의 세계를 말한다. 이처럼 평화로운 세계는 대립을 넘어서는 중도의 세계다. 또한 중도를 깨친 세계는 이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상의 세계다.

그날 저녁은 유별나게 물이 붉다붉다 싶더니만  
 밀물 때나 썰물 때나 파도 위에 떠 살던  
 그 늙은 어부가 그만 다음 날은 보이지 않네  
 —「인천만 낙조」 전문

중장의 ‘밀물’과 ‘썰물’은 양극단이다. 여기서의 ‘파도’는 고(苦)의 파도 혹은 번뇌의 ‘파도’다. 파도치는 밀물과 썰물의 양극단을 떠나 중도에 들어가면 그것이 여래의 길이다. 중장에서 “그 늙은 어부가 그만 다음 날은 보이지 않네”는 공(空)으로서의 중도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매일 쓰다듬어도 수염은 자라지 않고  
 하늘은 너무 맑아 염색을 하고 있네  
 한 소식 달빛을 잡은 손발톱은 다 물러빠지고—  
 —「달마 5」 전문

초장에서 왜 “매일 쓰다듬어도 수염은 자라지 않”는다고 표현했을까? 이런 표현은 역설이다. ‘수염’은 자라는데 ‘수염’이 자라지 않는다고 전제한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를 논리적으로 혼란에 빠뜨린다. 역설은 논리적인 모순관계로서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자주 사용되는 방식 가운데 하나다. 불교에서 머리카락과 수염은 번뇌의 온상이다. 수염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무명과 번

61) 연(緣)하여 일어나는 것. 이 연기의 이법(理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멀하므로 저것이 멀한다.”는 말로 단적으로 표현한다.

뇌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흑암화상은 이렇게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형식주의 또는 근본주의에 대해 강한 의문을 표시한다.”<sup>62)</sup> 그렇다면 “매일 쓰다듬어도 수염은 자라지 않”는다는 표현의 심층에는 무엇이 자리잡고 있을까? ‘수염’이 ‘자라지 않음’과 ‘자라남’의 양극단을 초월한 자리, ‘중도’로의 깨달음을 말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 깨달음의 세계는 ‘번뇌’를 없애고 맑은 “하늘”로 변화된 세계다. 선에서 보면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은 모두 번뇌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본래자리를 놓치지 않고 마음을 쓴다면 그것은 도다. 진리의 세계에서는 그 어떤 상(相)도 용납되지 않으니 어떤 경우라도 상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 소식’은 일정한 경지에 올랐음을 말한다. 그 경지에서의 “달빛”도 그 달빛을 잡은 “손발톱”도 공하므로 무상하여 “다 물러 빠”진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삶의 즐거움을 모르는 놈이  
죽음의 즐거움을 알겠느냐

어차피 한 마리  
기는 벌레가 아니더냐

이다음 숲에서 사는  
새의 떡이로 가야겠다.

—「적멸을 위하여」 전문

적멸(寂滅)이란 죽고, 사는, 인(因)·과(果)를 멸하여 다시 미(迷)한 생사를 계속하지 않는 적정(寂靜)한 경계(境界)를 말한다. 열반 또는 입적을 뜻하기도 한다. 사람의 몸은 허공과 같다.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일체 색이 공하면 모든 곳에 무심(無心)하며, 모든 곳에 무심하면 일체 색의 성품이 공하다고 하였다.”<sup>63)</sup> 초장의 “삶의 즐거움을 모르는 놈이/ 죽음의 즐거움을 알겠느냐”는 무심한 경지이며 공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체

62) 무문혜개, 오현 역, 앞의 책, 31면.

63) 퇴옹성철, 앞의 책, 85면.

색이 공하면 “삶의 즐거움”과 “죽음의 즐거움”의 분별된 마음이 없다. 일체색 공(一切色空)인 동시에 일체심공(一切心空)이다. 유심(有心)과 무심(無心)을 다 떠난 것이 진무심(眞無心)이고 여래무심(如來無心)이다. 초장의 표현은 구경의 무심, 즉 유무 양변을 완전히 떠난 중도무심(中道無心)이다. 일체에 무심한 것이 보리이고 해탈이며 열반이고 적멸이며, 선정이고 견성이다. 양변을 떠난 것을 일체처 무심이라 했으니 양변을 떠난 중도라는 말이다. 결국 중도를 바탕으로 열반이라 하고 적멸이라 한다. 조오현의 선시조 「적멸을 위하여」는 중도무심의 세계로 가기 위하여 일체 색이 모두 공함을 깨닫고 “기는 벌레”나 “새의 먹이”로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다.

비슬산 굽잇길을 누가 돌아가는 걸까  
 나무들 세월 벗고 구름 비껴 섰는 골을  
 푸드득 하늘 가르며 까투리가 나는 걸까

거문고 줄 아니어도 밟고 가면 운(韻) 들릴까  
 끊일 듯 이어진 길 이어질 듯 끊인 연(緣)을  
 싸락눈 매운 향기가 옷자락에 지는 걸까

절은 또 먹물 입고 눈을 감고 앉았을까  
 만첩첩(萬疊疊) 두루 적막(寂寞) 비워둬도 좋을 것을  
 지금쯤 멧새 한 마리 깃 떨구고 가는 걸까  
 —「비슬산 가는 길」 전문

비슬산 가는 길에 만나는 ‘나무들’과 ‘구름’, ‘골’, ‘까투리’는 “끊일 듯 이어”지고 “이어질 듯 끊인” 연(緣)의 “길”에 존재한다. 이런 연기는 서로 의존하며 존재하는 상의성(相依性)을 갖는다. 일체의 법(法: 존재)은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의존하며 인연 따라 일어난다. 인연 따라 일어난 모든 법은 무자성(無自性)이고 공이다. 『대지도론』에 나오는 “만약 여러 인연으로부터 생긴다면 무자성이다. 무자성인 것은 곧 공이다.”라는 말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 선시조에 등장하는 일체의 색은 그러므로 공하다. 모든 색이 공하면 모든

곳에 무심하며, 이 마음과 저 마음이 없다. “밖으로 정색에 물들지 않는 것을 ‘저 마음이 없다’하고, 안으로 모든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 마음이 없다’고 한다.”<sup>64)</sup> 이 마음과 저 마음이 없다는 것은 양면을 떠난 것이며 바로 중도다. “비위도 좋”은 “만첩첩(萬疊疊) 두루 적막(寂寞)”한 경계는 바로 중도의 세계를 표상한다.

나이는 열두 살  
이름은 행자

한나절은 디딜방아 찼고  
반나절은 장작 패고……

때때로 숲에 숨었을  
새 울음소리 듣는 일이었다

그로부터 10년 20년  
40년이 지난 오늘

산에 살면서  
산도 못 보고

새 울음소리는 커녕  
내 울음도 못 듣는다

—「일색과후(一色過後)」 전문

이 선사조에는 시(是)도 없고 비(非)도 없다. 취(取)도 없고 사(捨)도 없는 평상심(平常心)이 배어 있다. 취사와 시비가 없으면 양면을 떠난 것이며, 이것은 바로 중도의 세계를 보여준다. 둘째 수 중장의 “산에 살면서/ 산도 못 보”는 것은 참으로 볼 수 없는 경지에 들어간 것이다. 이 “경지에 들어가면 본체가 적적하고 담연<sup>65)</sup>해서 거래와 시비가 전부 다 떨어져버린 진공(眞空)

64) 퇴옹성철, 앞의 책, 85면.

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진공은 그 자리에서 묘유(妙有)가 성립된다.”<sup>66)</sup> 이 경지가 바로 해탈이고 열반이며 부처의 세계인 중도의 세계다.

### 3.3. 불이(不二)의 평등 세계

대승의 “기본은 ‘하나’인 진리에 있다. 이 절대한 ‘하나’인 진리를 불이법(不二法)이라고 한다.”<sup>67)</sup> 세속과 열반, 부처와 중생 등 대립되는 것은 모두 ‘하나’인 바탕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하나’인 바탕은 다름 아닌 ‘깨침’에 있다. 깨침의 안목으로 모든 것이 둘이 아닌 평등한 세계이다.”<sup>68)</sup> 깨친 자의 눈에는 언제나 둘이 아니다. ‘불이’는 『유마경』의 ‘입불이법문품(入不二法門品)’의 “보살은 어떻게 불이법문으로 잘 깨달아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유마힐이 묻는 데서 출발한다. 생사와 열반을 분별하면 둘이 되지만, 생사의 자성이 본래 공임을 깨달아 안다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무금선원<sup>69)</sup>에 앉아  
내가 나를 바라보니

기는 벌레 한 마리  
몸을 찢다 오그렸다가

온갖 것 다 삼아먹으며  
배설하고  
알을 슬기도 한다.

—「내가 나를 바라보니」 전문

65) 욕심이 없고 깨끗함.

66) 퇴옹설철, 앞의 책, 120면.

67) 강건기, 앞의 책, 68면.

68) 위의 책, 68-69면.

69) 백담사에 있으며, 조오현 시승의 선수행과 창작을 위한 공간이다.

초장의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은 ‘참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불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 자리는 ‘생각’을 초월한 자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즉각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 이전의 알아차리는 느낌’을 주시하기만 하면 된다.”<sup>70)</sup> 분별하는 생각 이전의 나, 즉 본래면목을 바라보면서 곧장 그 본래의 나를 깨닫는 것이다. 이런 깨달음의 경계에서는 ‘나’와 ‘벌레’가 둘이 아닌 ‘하나’인 차별 없는 세계이다. “몸을 오그렸다가// 온갖 것 다 갹아먹으며/ 배설하고/ 알을 슬기도” 하는 것은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 불이(不二)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부음을 받는 날은  
내가 죽어보는 날이다.

널 하나 짜서 그 속에 들어가 눈을 감고 죽은 이를  
잠시 생각하다가  
이날 평생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보고 그 길에서 만났던 그 많은 사람  
그 길에서 헤어졌던 그 많은 사람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나에게 꽃을 던지는 사람  
아직도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  
아직도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 많은 얼굴들을 바라보다가

화장장 아궁이와 푸른 연기  
뺨가루도 뿌려본다.

—「내가 죽어 보는 날」 전문

사설로 쓴 선시조, 「내가 죽어 보는 날」은 삶과 죽음이 ‘불이’임을 나타낸다. 인연으로 만났던 “그 많은 사람”과 “나에게” “돌”과 “꽃”을 던지는 사람,

70) 윤홍식, 『선문답에서 배운 선의 지혜』, 봉황동래, 2013, 13면.

“아직도”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은 모두 연기적 관계이다. 상호의존하고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은 무상(無常)하므로 무자성(無自性)이다. 자성이 없다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연기는 바로 공의 세계임을 나타낸다. 중장에서 “그 많은 얼굴들을 바라보”는 것은 스스로 ‘회광반조(回光反照)<sup>71)</sup>하는 것이다. 또한 중장의 “화장장 아궁이와 푸른 연기/ 뿔가루도 뿌려본다.”에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분별하고 대립하는 ‘내’가 죽고, 깨침의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깨침의 세계는 ‘불이의 세계’이며, 삶과 죽음이 하나인 세계다.

남산 위에 올라가 지는 해 바라보았더니

서울은 검붉은 물거품이 부걱부걱거리는 늪

이 내 몸 그 늪의 개구리밥 한 알에 붙은 쪼머리더라

—「이 내 몸」 전문

초장의 “지는 해 바라”보는 것은 자신의 내면이다. 바깥의 ‘현상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의 세계는 모든 것들을 꺼내고 또 꺼내는 수행으로 그 어떤 오염된 것이 들어와도 그에 물들지 않고 곱게 피어나는 연꽃 같은 세계이다.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검붉은 물거품이 부걱부걱거리는 늪”, “그 늪”의 미물인 “쪼머리”와 동일화시킨다. 깨달은 자의 겸손이다. ‘나’와 ‘쪼머리’가 불이, 즉 ‘하나’인 세계이다. 이런 깨침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계는 둘이 아닌 ‘하나’의 평등한 세계이다. 그 깨침을 우리에게 고요하게 말하고 있다.

털같이 길짐승 또는 날짐승이었다면

까마귀밥나무 또는 나무귀신 같은 부처여

그냥은 앓을 헛대도 죽을 목숨도 없구나

71) 밖으로 향하는 의식의 빛을 안으로 돌이켜 내면을 비추어 보는 것임.

-「금우반통(金牛叛桶)<sup>72)</sup>-만인고척 10」

제목인 금우반통(金牛叛桶)은 금우반통작무(金牛叛桶作舞)로도 알려져 있는 공안이다. 식사를 하면서 금우 화상처럼 밥통을 들고 춤을 추고 노래하며 음식에 깃든 공덕을 찬탄<sup>73)</sup>하는 내용이며, 또한 이런 금우 화상의 행동은 방거사가 말한 그대로 불심의 지혜작용인 신통묘용이며 유희삼매의 삶인 것이다.<sup>74)</sup>라는 내용의 화두를 들고 지은 이 선시조는 “까마귀밥나무 또는 나무귀신 같은 부처여”라며 호명한다. 내가 “털같이 길짐승 또는 날짐승이었다면” 나는 “그냥은 앓을 헛대도 죽을 목숨도 없구나”하고 진술한다. 여기서의 핵심은 ‘삶’을 상징하는 “앓을 헛대”와 죽음을 상징하는 “죽을 목숨”이다. 이 ‘삶’과 ‘죽음’이 하나인 불이의 세계를 깨치고 시인은 금우 화상처럼 춤이라도 추는 걸까.

산 너머 놀 너머에  
일월마저 겨운 저녁

머물던 하나 소망  
그나마도 다 사위고

긴 여운 남기는 바람  
열어놓은 내 가슴.

-「불이문(不二門)」 전문

‘불이문(不二門)’은 둘이 아닌, 대립이나 분별을 떠난 절대의 경지를 나타낸다. 중장의 “열어놓은 내 가슴”이 이를 상징한다. 중장의 “머물던 하나 소망”은 ‘나’ 중심의 의식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의식상태는 주관과 객관

72) 『벽암록』 제74칙에 나오는 금우반통작무(金牛叛桶作舞: 금우가 밥통을 들고 춤을 추다)로 알려져 있는 공안.

73) 원오극근, 조오현 역해, 『벽암록』, 불교시대사, 1999, 252면.

74) 원오극근, 정성본 역해, 앞의 책, 466면.

을 둘로 나누어 생각하게 된다. 생각하는 나와 생각이 둘로 나누어져 있다. 이런 상태에서의 깨침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사위고”는 이를 말해준다. “산 너머 놀 너머에/ 일월마저 겨운” 경지는 일체의 존재가 평등함을 나타내는 불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경지의 ‘불이문’의 “가슴”을 “열어놓”고 있다. 우리도 그 ‘불이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분별하는 의식을 다 내려놓고 텅 비워야 할 것이다.

화염경 펼쳐놓고 산창을 열면  
이름 모를 온갖 새들 이미 다 읽었다고  
이 나무 저 나무 사이로 포롱포롱 날고……

풀잎은 풀잎으로 풀벌레는 풀벌레로  
크고 작은 푸나무들 크고 작은 산들 짐승들  
하늘 땅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생명들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하나로 어우러져  
몸을 다 드러내고 나타내 다 보이며  
저마다 머금은 빛을 서로 비춰주나니……  
—「산창을 열면」 전문

불교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해탈과 열반, 즉 깨침에 있다. 그 “깨침을 연기라고 하든지, 공이라고 하든지, 마음이라고 하든지 그것은 불이(不二), 즉 하나의 바탕이다. 이것은 바로 불교의 평등관이 성립되는 기초이다.”<sup>75)</sup> “산창을 열”고 바라보는 일체의 모든 존재들, 즉 “새들”과 “풀벌레”, “푸나무들”, “산들”, “짐승들”이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평등하게 보인다. 분별사랑이 끊어진 그 평등한 자리가 깨달음의 세계이다. “자연경계인 경치와 내면경계인 선정의 마음이 합일”<sup>76)</sup>된 조오현의 선시조 「산창을 열면」은 “하나로 어우러지

75) 강건기, 『깨침을 향하여(상권)』, 불일출판사, 2008, 29면.

76) 박재금, 「불가시(佛家詩)의 법(法)과 정(情) - 『상월집(霜月集)』을 중심으로」, 『국제언어문학』 제21호, 2010.4, 130면.

고 하나로 어우러진” 불이의 세계이다. “몸을 다 드러내고 나타내 다 보이는” 환하게 열린 세계, 그 깨침의 세계에서 “저마다 머금은 빛”인 본래면목을 “서로 비춰”주는 ‘하나’인 세계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 4. 결론

본고는 조오현 선사조의 사상적 바탕인 공사상을 중심으로 작품의 개별적인 분석을 통해 그의 선사조 전반에 흐르고 있는 상대적인 차별과 분별이 없는 ‘공(空)’의 세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아울러 작품의 형성 배경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반야공의 자유 세계’는 『반야경』에서 말하는 공사상을 바탕으로 펼쳐지는 세계이다. 이 세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작품 「아지랑이」에서는 ‘공사상’을 통해서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깨달음을 보여주고, 또한 「허수아비」를 통해서 어느 곳에도 막힘이 없는 자유자재한 삶의 경지를 나타내는데, 이는 자유로운 삶이 공의 세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지향이기 때문이다.

조오현 선사조 「된바람의 말-무자화 5」에서는 『반야심경(般若心經)』의 대표적인 구절인 ‘색불이공 공불이색(色不異空 空不異色)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의 사상이 오롯이 나타나고 있으며, 「아지랑이」에서는 공사상을 통해서 불변하는 실체가 없다는 깨달음을 보여준다.

『반야심경』에는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액(照見五蘊皆空 度一切苦厄)’이라는 핵심적 구절이 있다. 이는 ‘오온(五蘊)이 공하다는 것을 깨치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말이다. 또한 선사조 「허수아비」에서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나도 웃는 허수아비”는 오온을 공으로 보고 살아가는 대자유인의 경지를 보여준다.

‘중도의 평화 세계’가 잘 나타나 있는 조오현의 선사조 「숲」에서는 대립을 넘어 고요하고 평화로운 중도의 세계를 보여주고, 「적멸을 위하여」에서는 중도무심의 세계로 가기 위하여 일체 색(色)이 모두 공함을 깨닫고 “기는 벌레”

나 “새의 먹이”로의 실천을 보여주고 있다. 「일색과후」에서는 시(是)도 없고 비(非)도 없으며 또한 취(取)도 없고 사(捨)도 없는 그야말로 양면을 떠난 중도의 세계를 보여준다.

‘불이의 평등 세계’는 ‘하나’인 진리에 있는데 그 ‘하나’인 진리가 바로 ‘불이법(不二法)’이다. 깨침의 안목으로는 모든 것이 둘이 아닌 하나의 세계이다. 조오현은 「내가 나를 바라보니」에서 ‘나’와 ‘벌레’가 둘이 아닌 ‘하나’인 차별 없는 평등한 세계를 펼쳐 보인다. 그리고 「금우반통(金牛叛桶)-만인고척 10」에서는 ‘삶’과 ‘죽음’이 하나인 불이의 세계를 보여준다. 「산창을 열면」에서는 “몸을 다 드러내고 나타내 다 보이는” 환하게 열린 세계, 그 깨침의 세계에서 “저마다 머금은 빛”인 본래면목을 “서로 비춰”주는 ‘하나’인 세계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다.

이렇게 조오현의 선시조에는 ‘공사상’이 자리잡고 있으며 여러 가지 세계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공의 세계를 나타내는 그의 선시조는 전통적인 한시 형식의 선시는 물론 한글 선시와도 변별성을 보이며 새로운 문학 양식으로 자리잡는다. 그의 선시조에 나타난 ‘공(空)’의 세계는 궁극적으로 자유와 평화 그리고 평등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민족문학인 시조와 선의 결합으로 형성된 선시조를 사상 최초로 개척하여 새로운 문학 양식으로 정립시킨 조오현의 문학적 성취는 문학사적으로도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다.

[ABSTRACT]

A Study on the World of 'Empty' Manifested in Jo, Oh-hyun's  
Zensijo

This paper did research on how the World of 'Empty' free of relative discrimination and Vikalpa (distinguishment) is manifested with the 'Empty' idea, which is the ideological background of Jo, Oh-hyun's zensijo, as the center. In addition, this paper considered the background of Jo-Ohhyun zensijo formation and its characteristic.

The term of 'Empty(空)' in 'Empty' idea is the word indicating the fundamental concept of Buddhism, meaning that there is no eternal noumenon(substance) in all things which exist. Jo, Oh-hyun's 'Empty' idea is represented as the free world of the sūtra of the heart of prajñā, the peaceful world of the Middle Path, and the equal world of 'No Second.'

'The free world of the sūtra of the heart of prajñā is the one stretched out on the basis of the 'Empty' idea mentioned by 『Prajñā-Paramitā』 In his work 「Haze」 plainly portraying this world, the author shows Awakening that there is no unchangeable substance while representing a free and bold realm of life through his work 「Scarecrow」. In his zensijo 「Forest」 portraying 'the World of the Middle Path' quite explicitly, the author expresses a peaceful world beyond confrontation, namely, the World of the Middle Path. 'The Equal World of No Second' represents the World of 'Oneness' other than two, i.e. the equal world. In his work 「The Day I am trying dying」, the author is sending a message that "I", who is discriminating and confronting, die, and 'I' of enlightenment am reborn', and such enlightenment represents the world where life and death are one other than two.

Jo, Oh-hyun's zensijo representing the world of empty like this, is getting established as a new literary form while showing a differentiation not only from zen poetry of traditional Chinese poetry form but also from Hangeul zen poetry. Ultimately, the World of 'Empty' represents the world of freedom, peace and equality.

Keyword : Jo, Oh-hyun, Zensijo, Empty, the World of Empty, Empty in the sūtra of the heart of prajñā, the Middle Path, No Second

## 참고문헌

### □ 기본자료

- 조오현, 『심우도』, 한국문학사, 1978, 16-105면.  
\_\_\_\_\_, 『산에 사는 날에』, 태학사, 2001, 9-77면.  
\_\_\_\_\_, 『절간이야기』, 고요아침, 2003, 83-189면.  
\_\_\_\_\_, 『설악시조집』, 설악문도회, 2006, 2-161면.  
\_\_\_\_\_, 『허수아비』, 시학, 2007, 15-135면.  
\_\_\_\_\_, 『아득한 성자』, 시학, 2007, 15-138면.  
\_\_\_\_\_, 『비슬산 가는 길』, 고요아침, 2008, 15-92면.  
\_\_\_\_\_, 권영민 엮음, 『적멸을 위하여』, 문학사상사, 2012, 5-270면.  
\_\_\_\_\_, 『마음 하나』, 시인생각, 2013, 15-92면.  
\_\_\_\_\_, 『내 삶은 햇길음』, 참글세상, 2015, 14-307면.

### □ 단행본

- 강건기, 『깨침을 향하여(상권)』, 불일출판사, 2008, 29면.  
\_\_\_\_\_, 『깨침을 향하여(하권)』, 불일출판사, 2008, 68-70면.  
곽철환,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불광출판, 2014, 88-155면.  
권기호, 『선시의 세계』, 경북대학교출판부, 1991, 13-25면.  
김형중, 「한글 선시의 현대적 활용」, 송준영 편, 『‘빈 거울’을 절간과 세간 사이에 놓기』, 시와세계, 2013, 100면.  
김형중, 「아득한 성자」, 권성훈 편, 『이렇게 읽었다』, 반디, 2015, 44면.  
나카무라 하지메, 남수영 역, 『용수의 중관사상』, 여래, 2010, 231면.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교재 편찬위원회, 『불교 사상의 이해』, 불교시대사, 2005, 152면.  
두송백(杜松柏), 박완식·손대각 옮김, 『선(禪)과 시(詩)』, 민족사, 2000, 28-434면.  
무문혜개(無門蕙開), 오현 역, 『무문관』, 불교시대사, 2007, 31-282면.  
송준영, 『선, 언어로 읽다』, 소명출판, 2010, 19면.  
엄우(嚴羽), 배규범 역주, 『창랑시화(滄浪詩話)』, 다운샘, 1998, 61면.  
오세영, 『현대시와 불교』, 살림출판사, 2006, 91면.  
원오극근(園悟克勤), 정성본 역해, 『벽암록』, 한국선문화연구원, 2010, 121-466면.  
원오극근, 조오현 역해, 『벽암록』, 불교시대사, 1999, 252면.  
윤홍식, 『선문답에서 배운 선의 지혜』, 봉황동래, 2013, 13면.

- 이중찬, 『한국선시의 이론과 실제』, 이화문화출판사, 2001, 15면.  
이지엽, 「21세기 시조 창작의 일 방향 고찰」, 송준영 편, 『'빈 거울'을 절간과 세간 사이에 놓기』, 시와세계, 2013, 757면.  
임종욱, 『우리 고승들의 선시세계』, 보고사, 2006, 16면.  
퇴옹성철, 『성철스님의 돈황본 육조단경』, 장경각, 2015, 83면.  
『백일법문(하)』, 장경각, 2014, 32-120면.

□ 논문

- 권성훈, 「조오현 선시 「일색변」에 나타난 무아론」, 『한국문예창작』 제13호, 2008, 27-46면.  
김민서, 「조오현 선시 연구」, 경기대 박사논문, 2014, 1-127면.  
박규리, 「경허선시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2012, 18면.  
박재금, 「불가시(佛家詩)의 법(法)과 정(情) - 『상월집(霜月集)』을 중심으로」, 『국제언어문학』 제21호, 2010.4, 130면.  
박제천, 「현대시와 현대시조의 의미구조 탐색」, 『문학과창작』, 2002.6, 167면.  
서덕주, 「현대 선시 텍스트의 생성과 해체성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2004, 30면.  
석성환, 「무산 조오현 시조 연구」, 창원대 석사논문, 2006, 2-131면.  
유순덕, 「현대시조에 나타난 형식미학과 생명성 연구」, 경기대 박사논문, 2015, 187-216면.  
이승하, 「조오현 시에 나타난 불·법·승」, 『한국시조시학』 제2호, 2014, 210-229면.

이 논문은 2017년 7월 4일 접수되어 7월 28일까지 심사받아 8월 18일 게재 확정됨.

